논어 17편 양화 20장 · 원문·풀이

孺悲欲見孔子，孔子辭以疾。將命者出戶，取瑟而歌，使之聞之。

독음 · 유비욕견공자 공자사이질 장명자출호 취슬이가 사지문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유비의 방문을 병을 핑계로 사양한 뒤 일부러 음악을 들려주어, 만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병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孺 젖먹이 유 유 / 悲 슬플 비 비 / 欲 욕심낼 욕 욕 / 見 볼 견 견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辭 말 사 사 / 以 써 이 이

疾 병 질 질 / 將 장차 장 장 / 命 목숨 명 명 / 者 놈 자

出 날 출 출 / 戶 지게 호 호 / 取 거둘 취 취 / 瑟 비파 슬 슬

而 말이을 이 / 歌 노래 가 가 / 使 하여금 사 사 / 之 갈 지

聞 들을 문 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